지역 소식통

정읍시, 지역공동체 리빙랩사업 25일까지 접수

정읍시가 주민 주도의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리빙랩사업 신청을 오는 25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주민자치회, 사회적경제 조직, 마을공동체, 농업인 단체 등이며,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기한 내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농촌 현안을 발굴하고 협력적 방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로, 공동체의 힘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되살리고 주민 중심의 혁신 모델을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총사업비 6000만원이 투입되며, 2개 팀을 선정해 팀당 3000만원(역량 강화 및 실행 사업 포함)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잔류농약 분석 능력 '세계적 수준' 인정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이 영국 식품환경청(FERA) 주관 국제 분석 숙련도 평가(FAPAS)에서 도내 농업기술센터 최초로 5년 연속 합격점을 획득했다.

FAPAS(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는 전 세계 정부기관, 연구소 및 민간 분석기관들이 참여하여 잔류농약, 수질 등 약 10여 개 분야의 분석 정확도와 신뢰도를 평가받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평가 프로그램이다.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2021년 운영 개시 이후 매년 본 평가에 참가해 잔류농약 분석 능력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꾸준히 인정받고 있다.

올해 평가에는 전 세계 66개 분석기관이 참여했으며, 고창군 농산물 안전분석실은 토마토 농산물 시료 내 10개 농약 성분을 분석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으며, 세계적 수준의 잔류농약 분석 능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 협약

정읍 지역현안 문제 해결에 도 14억원 · 시 6억원 지원

시, "지역 ·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 만들 것"

정읍시가 전북RISE센터, 우석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와 손잡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사업(RISE)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1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협약식을 열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기반을 다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성식 전북RISE센터 총괄운영본부 본부장, 정희석 우석대학교 RISE사업단장, 김한수 전북과학대학교 RISE사업단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과 대학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정읍의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전북도는 14억 2000만원, 시는 6억 1000만원 등 총 20억 3000만원을 대학에 지원한다. 전북과학대학교는 RISE사업인 'JB아트시티플랫폼사업'을 비롯해 글로컬 대학 30 사업으로 이주민 및 다문화 인재 활용, 쌍화차거리 활성화, 정읍의 과거와 미래를 잇는 참여형 로컬 콘텐츠 개발 등 3개 사업을 추진한다. 우석대학교는 '청년 중심 거리 문화도시 정읍 만들기' 등 2개 글로컬대학 30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 역사, 청년, 이주민, 지역 상권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통합적 혁신 모델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문화·산업을 연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대통령 지역공약 국가 계획 반영 총력

지역공약 이행TF운영 성과 기반 단위사업별 국가계획 반영 적극 대응

정읍시가 지난 18일 시청 2층 소회의실에서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TF 제4차 회의를 열고 국정과제 반영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국가사업화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지역공약으로 제시된 △첨단의료복합 산업단지 조성 △동진강 회복 프로젝트 △내장저수지 주변 사계절 체류형 관광벨트 조성 △공공기관 이전부지 개발 등 도심재생 활성화 지원 △우주방사선 신소재 테스트베드 및 국가바이오지원 평가·실증지원센터 구축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했다. 또 지난 13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국정과제 반영 사항을 공유했다.

시는 지난 6월 30일 대선공약 이행 TF를 구성해 지역공약의 구체화와 실행 기반을 마련해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정운영 계획에 담긴 과제들의 향후 정부 부처 국가계획 반영 방안과 추진계획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앞으로 시는 새 정부가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564개 실천과제와 연계해 주요 사업들이 정부 부처의 국가계획에 반영되고, 세부 이행 실천과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TF 운영의 본래 목적이었던 '지역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목표가 확정된 만큼, 각 부서별 전담 대응 체계로 전환해 단위사업별 세부 이행계획과 실천과제를 신속히 마련하고 정부 부처별 국가계획에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청년 공직자 혁신 모임 '혁신ON' 발대

정읍시가 19일 청년 공직자 주도의 혁신 모임 '혁신ON' 발대식을 열고 창의적 적극행정 문화 조성과 정책 발굴을 위한 출발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청년이 주도하는 지역혁신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공공행정 혁신과 적극행정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혁신ON'은 경력 5년 이내, 7급 이하 MZ세대(20~30대) 공직자로 구성된 실무 협의체로, 젊은 세대의 참신한 시각과 문제 해결 역량을 행정에 반영하기 위해 꾸려졌다.

발대식은 '혁신ON' 운영계획 소개와 이학수 시장의 격려사로 문을 열었다. 이어 '생성형 AI(챗GPT) 활용 공공행정 혁신'을 주제로 전문가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서는 생성형 AI의 최신 동향과 공공분야 활용 사례, 행정 효율화 전략 등이 소개됐으며, 실무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실습이 함께 이뤄져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직접 체감하는 시간이 됐다.

참여한 구성원들은 7개 팀으로 나뉘어 팀명과 대표를 정하고, 각 팀이 선정한 추진과제에 대해 자유롭고 솔직한 토의를 이어갔다. 참가자들은 "또래 동료들과 진솔하게 소통하며 정읍시의 미래를 고민할 수 있어 뜻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학수 시장은 "청년 주도의 혁신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열정이 모여 조직을 넘어 정읍시 전체를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 군민 1인당 30만원 민생안정지원금 지급

부안군이 고물가와 경기침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안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군은 물가상승과 유례없는 폭염·폭우로 고통받는 부안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력의 마중물이 되고자 부안군의회와 협의해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에 필요한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일부 사업을 조정해 마련했으며 추석 명절 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 12일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부안에 두고 있는 군민과 관련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및 영주 자격 또는 일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장기화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군민들의 민생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부안 밀 제과 · 제빵학교 조성 교육과정 시범 추진

권익현 군수 현장 방문… 건의사항 청취

부안군은 부안 밀 제과·제빵학교의 교육과정을 미리 운영해 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18일 제빵기능사 자격증 취득반 교육 현장을 권익현군수가 방문해 수강생과 강사진 격려와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향후 계화면 의복리에 조성되는 사업으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해 실제 교육센터 운영에 반영하고자 추진됐다.

특히 수강생들은 전문 강사진의 체계적인 지도와 쾌적한 실습환경 감사를 통해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고 전했다.

권익현 군수는 "시범 운영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향후 조성되는 제과·제빵학교가 더욱 완성도 높은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앞으로 부안이 우리나라 제과·제빵산업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기자

고창군, 제8회 청년친화헌정대상 '종합대상' 수상

전북 고창군이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가 주관한 '제8회 대한민국 청년친화헌정대상'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년도(2024년) 소통대상에 이은 2년 연속 청년친화 부문 수상이다.

수상은 청년친화헌정대상 선정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됐다. 고창군이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추진해온 다양한 정책과 성과가 인정받았다.

군은 청년이 정착하고 성장하는 '청년친화도시'를 실현을 위해 주거·일자리·창업·문화·참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 해왔다.

세부적으로 △주거 안정 지원=청년임대주택, 월세지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일자리·창업 활성화=고창형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창업패키지'를 통한 창업자금·멘토링·판로지원 제공, 청년농업인 맞춤형 창업컨설팅 운영 지원 △청년 소통활성화='청년스페이스 ON(청년공유공간)', 청년ON 인터뷰·콘텐츠 제작 등 △청년정책 모니터링단 '청포터즈' 운영 등이다.

이번 수상을 통해 고창군은 청년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하게 됐다. 향후에도 청년이 머물고 돌아오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